

전남 관광지 입장료 '천차만별'...최고 8배 차이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또는 여행 명소의 입장료가 평균 3000원대에 이르고 곳에 따라 최고 8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중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33곳의 입장료를 분석한 결과, 성인 기준으로 평균 입장료는 3100원에 달했다.

관광지별로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순천 자연휴양림으로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이다. 성인은 8배, 청소년은 10배, 어린이는 13배 차이이다.

자연생태공원에 이어 보성 울포해수욕장센터가 7000원(성인 기준)으로 뒤를 이었고 곡성 섬진강가자

마을과 섬진강 도개비마을, 해남 땅끝 모노레일, 함평 엑스포공원과 곤충생태관, 자연생태공원이 각각 5000원이다.

성인 1인당 4000원을 받는 곳은 순천 낙안읍성과 무안 황토갯벌랜드, 화산 백련지 등이고 목포 어린이비대과학관을 비롯해 여수 전남 해양수산업과학원, 장흥 편백수우드랜드, 신안 전사섬 분재공원 등은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2000원을 받는 곳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과 나주 영상테마파크, 구례 양생화 테마공원 등 모두 11곳이고, 1000원을 징수하는 곳은 순천 자연휴양림과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영암 성기동 국민관광지, 장성 방장산 자연휴양림, 국립 장성숲체원 등 6곳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17곳에서는 청소년

순천만 생태공원 8000원 '최고' 장성 방장산 휴양림 1000원 '최저'

전시·체험 최소 2000원...지자체 운영 33곳 성인 기준 평균 3100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에게도 1인당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받고 있고, 취학 전 어린이에게

도 2곳은 5000원, 또 다른 2곳은 4000~4500원, 땅끝 모노레일 등 7

곳은 2000원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순한

자연경관을 제공하는 관광지,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상징적으로 1000원만 받는 등 저렴한 편이고, 체험시설이나 전시시설 등을 갖췄거나 전국적으로 이름난 여행 명소는 최소한 2000원 이상, 많게는 4000~5000원 받는 곳이 적잖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를 현재 2000원(성인 기준)에서 절반 이하로 낮추려는 법원의 화해고 결정문에 대해 "어린이 프로방스와 기후변화체험관, 허브센터, 영화세트장, 개구리 생태공원 등 5~6개 무료 전시·체험시설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정환 기자

신안 '1000원 여객선' 선관위 제동...전남도 구상 영향 미치나

전남도가 '100원 택시' 도입에 이어, 섬 주민을 위한 '1000원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려던 '1000원 여객선' 구상이 일단 보류됐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보류된 시범 운항이 전남도의 '1000원 여객선'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100원 택시' 도입에 이어, 섬 주민을 위한 '1000원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려던 '1000원 여객선' 구상이 일단 보류됐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보류된 시범 운항이 전남도의 '1000원 여객선'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100원 택시' 도입에 이어, 섬 주민을 위한 '1000원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려던 '1000원 여객선' 구상이 일단 보류됐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보류된 시범 운항이 전남도의 '1000원 여객선'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현재 전남 지역에 7개 시·군 164개 섬을 왕래하는 53개 여객선 항로가 운영,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8000원(국비50%+지방비 50%)의 예산이 소요된다.

1000원 여객선은 전남 도서민 수 6만5127명에 대해 1인당 1870원을 추가해 연간 42배(월 3.5배)를 지원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1000원 여객선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국비가 100억~150억원 정도가 추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추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 1000원 여객선은 준비로 축제기간에 교통

비를 과다 지원하다 보니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 같다"면서 "도가 추진하는 1000원 여객선은 교통복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운항하지는 정책적인 사업이라 선거법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00원 여객선 도입을 위해 섬을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도 100억~150억원의 국비가 추가되면서 1000원 여객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서 농촌활력을

농협보성군지부 등 주관해
두원산업(주) 박선천 대표
별교읍 박석마을 명예이장

두원산업(주) 박선천 대표이사를 보성군 별교읍 박석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행사가 18일 보성군 별교읍(읍장 조계돈), 농협보성군지부(지부장 서희수), 별교농협(조합장 김기순)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CEO와 및 사회단체장 등을 농촌마을과 연계시켜 상호교

감과 인정을 나누어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농협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도농협동운동이다.

이날 행사에서 두원산업(주) 박선천 대표이사는 박석마을 주민들과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팔아주기, 일손돕기 등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기업과 농촌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명예이장 위촉 소감을 밝혔다.

보성=인구일 기자

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소지" 유권해석 보류 도 "전국적 교통복지 정책사업, 선거법 무관"

'1000원 여객선'은 거리와 관계없이 여객선 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해 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지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안군은 지난 14~16일 자은~증도 항로에 '1000원 여객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일단은 유보됐다.

신안군은 시범 운항 때 여객 배삯은 3600원에서 1000원, 승용차삯은 2만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낮추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피해갈 지 관심이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적인 1000원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가 신안군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000원 여객선은 섬주민의 교통복지차원으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국고지원을 잇따라 건의했지만,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